

장애자 治療欲求에 대한 對策

李 泰 榮
(韓國社會事業大學長)

I. 序 言

最近 産業技術社會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心身障礙兒를 爲한 教育과 再活對策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를 招來케 되었다. 特히 美國을 비롯해서 유럽 先進諸國에서 最近 20~30年 동안 이룩한 心身障礙者의 教育과 再活對策의 成果는 人類가 障礙者 問題에 關心을 表明해 온 以來 지금까지 殊곤 이룩한 成果를 凌駕하는 驚異의 發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心身障礙者의 問題에 대한 人類의 關心이 過去 어느때 보다는도 提高되어 이에 積極 對處해 나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心身障礙者의 數는 增加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障礙의 症狀도 더욱 重症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障礙者의 問題는 날이 갈수록 더욱 큰 問題로 우리 人類를 괴롭히고 있다.

「世界障礙者의 概」를 닮아 敎皇「마오로」2世는 新年 祝辭를 통해 世界 各國의 政府가 國防豫算을 削減하여 心身障礙者의 問題를 위해 豫算을 늘일 것을 促求한 바 있으며, 英國의 心身障礙者問題 專擔 責任者「엘프·모리스」는 世界 各國軍備豫算中 1%만 障礙者의 豫防과 治療에 쓴다면 그 數는 顯著히 줄어 들 것이라고 診

斷했다.

이들 心身障礙者에 대한 對策水準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그리고 低開發國家群間에 더욱 큰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最近 유엔 世界保健機構(WHO)의 報告에 의하면 全人類 心身障礙者 數의 80%는 第3世界에서 發生하고 있으나, 이들의 教育·再活·福祉를 爲한 財源의 90%는 先進國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以上 報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人類의 約 4億5千萬에 이르는 心身障礙者中 80%에 該當하는 約 3億6千萬의 障礙者가 第3世界圈에서 出現하고 있으며, 더우거나 이들의 大部分이 特殊教育이나 再活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큰 問題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特殊兒童을 위한 教育對策은 美國人 宣敎師 R.S. Hall 女史가 盲教育을 始作한 以來 約 1世紀에 가까운 傳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特殊教育의 量的普及은 勿論, 質的水準에 있어서도 대단히 未洽한 實情에 있다.

障礙兒童의 教育欲求에 대한 對策을 論議함에 있어 먼저 우리나라의 障礙兒童 實態와 이들의 教育現況을 概觀한 다음, 主要 障礙領域別로 障礙特性에 따른 教育要求를 살펴보고, 이들 障礙兒童의 教育對策에 대한 基本的인 改善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特殊兒童의 實態와 教育現況

이미 많은 先行研究에서도 指摘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障礙兒童의 出現率과 그 正確한 數에 대한 信憑性 있는 資料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研究者들에 의해 지금까지 提示된 計數들 間에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國際的인 資料와 비추어 볼 때도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에 準據해야 할 資料를 얻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心身障礙者를 위한 教育對策의 樹立은 어디까지나 正確한 對象數와 그 實態資料에 根據해야 함을 생각할 때 國家의 次元에서 專門

<편집자주> 한국신체장애자 재활협회주최 제2회 장애자복지대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 특집 : 장애자의 복지전망

의이고 綜合的인 實態調査가 專門家와 行政力이 動員된 가운데 全國的으로 實施되어야 함을 이 機會에 한번 더 強調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全體 人口가운데 얼마나 많은 心身障者가 있으며, 또 教育的 對策을 받아야 할 心身障兒童의 數가 얼마나 되는지를 推定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本人은 이미 이제까지 發表된 國內外 關係資料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우리나라의 心身障兒童의 實態를 밝힌 바 있다.

美國障兒 教育局(B.E.H.)에서도 5~18세의 學令期 兒童 가운데 11.26%가 障兒童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며, 障兒童別로는 視覺障者가 0.1%, 聽覺障者 0.6%, 精神薄弱兒 2.3%, 肢體不自由兒 0.5%, 言語障兒 3.5%, 情緒障兒 0.6%, 學習障兒 2.0%로 推定한 바 있다.

그리고 學者 Dunn도 10.5%로 特殊兒童의 出現率을 提示하고 있고 今年을 「世界障者의 해」로 宣布한 UN에서도 全世界 人口의 約 10%가 心身障者인 것으로 報告하고 있다.

대개 學令期 兒童 가운데 輕度の 障兒童까지 合쳐 約 10% 가까운 心身障者가 있음이 推定되나, 그 중에서도 대체로 優先的인 措置가 취해져야 하는 障兒童인 視覺障者(盲·弱視) 0.1%, 聽覺障者(聾·難聽) 0.5%, 精神薄弱 2.3%, 肢體不自由 0.6% 등 4개 領域을 모두 合하여 약 3.5%는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6~18세에 該當하는 學令期 兒童중 約 40萬名 程度의 心身障兒童이 있을 것으로 推算된다(4個 障兒童 領域에 局限함). 이들 가운데 1980年 現在 全國 56個 學校에서 約 9,000名, 그리고 353個 特殊學級에서 約 6,000名을 合하여 모두 15,000명, 即 40萬名의 心身障兒童 가운데 約 4% 程度만이 特殊教育의 惠澤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障兒童別로 본다면 盲學校가 13個, 聾學校가 19個, 精薄學校가 19個, 肢體不自由學校가 5個인데 이 가운데 國立이 2個校, 公立이 12個校, 私立이 42個校로써 私學의 依存度가 매우 높은

實情에 있다.

또한 全國 328個 一般 國民學校에 設置된 特殊學級은 모두가 教殘可能精神薄弱兒童을 對象으로 收容하고 있다. 教育可能精神薄弱兒童特殊學級은 한 學校에 最少限 2個班을 併設하여 連繫시켜야 하며, 全學生이 2,000명 以上인 學校에는 義務的으로 設置케 하고, 그 以下인 學校는 統合學區制 方式으로 特殊學級이 擴大 設置되어야 한다. 特히 中等部의 特殊學級이 早速히 設置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事態를 볼 때 心身障兒童의 教育 權保障을 위해서도 特殊學校나 特殊學級과 같은 特殊教育機關의 擴充이 急先務이며 이에 따른 有能한 特殊教師의 確保도 이루어져야겠다.

Ⅲ. 障兒童特性에 따른 教育的要求

一般的으로 障兒童은 그가 隨伴하는 身體的, 知的, 言語的, 情緒的 障者로 말미암아 正常兒童과는 다른 特殊한 要求를 가지게 되므로 障兒童의 教育은 그들의 障兒童特性에 따라 惹起되는 特殊한 教育的要求(Educational needs)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教育計劃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1. 視覺障兒童

視覺障兒童은 失明으로 因하여 視覺以外의 다른 感覺을 通해서 學習해야 하기 때문에 視覺障兒童의 特異한 教育的要求가 있는 것이다.

特히 視覺障兒童의 原因, 程度, 失明時期 등에 따라 이들 間에는 教育的要求에 個人差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個人差에 따라 教育的要求가 다르며 그 教育方法이 달라지는 것이다. 大多數의 視覺障兒童은 殘存視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視機能 增大(Visual function)를 通해 殘存視力開發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先天性이나, 後天性이냐에 따라 教育的 意味가 다르며 知的 發達과 情緒發達에 影響을 주는 것이 全盲과 弱視의 경우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空間概念이나

色彩概念, 등 基本概念形成이 매우 重要的 것이다. 때문에 視覺障礙兒는 殘存視力活用訓練이나 點字읽기와 쓰기, 打字機使用訓練, 「오리엔테이션」 「모빌리티 訓練」, 弱視兒 大文字 읽기와 쓰기 訓練, 生活適應訓練 등 그들의 障礙特性과 要求에 맞는 教育計劃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2. 聽覺障礙兒

聽覺障礙兒童의 教育의 要求는 이들 兒童이 隨伴하는 聽覺障礙의 程度, 部位, 時期 그리고 兒童의 人性的特性, 父母의 態度등에 따라 多様하게 나타난다. 聽覺障礙兒 教育에 있어 가장 큰 課題는 어떻게 하면 聽覺障礙로 인한 兒童의 커뮤니케이션상의 制約性을 補償해 주느냐에 集中되고 있다. 最近 電子工學의 發展과 各種 테크놀러지의 開發에 따라 高性能補聽器가 多様하게 開發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聽覺障礙者를 위한 各種 Tele-Communication體制가 積極 講究되고 있다.

聽覺障礙兒를 위한 言語指導方法論은 過去와 같이 單純히 口話나, 手話나하는 論爭의 時代를 거쳐, 最近에는 言語指導方法論 그 自體에 대한 關心보다 어느 方法이 그 兒童에게 가장 適合한 커뮤니케이션 方法이 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精神薄弱兒는 知能遲體에 따른 心理的, 行動的 特性으로 인하여 精神薄弱兒의 特殊한 要求가 있게 된다. 精神薄弱兒는 身體 運動的인 發達이나 言語發達面에서 遲滯되기 때문에 知覺—運動發達을 促進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言語治療, 作業治療와 같은 特別한 教育內容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精神薄弱兒에게 疾病이나 營養失調, 教育的 刺戟環境의 缺損 등에 의하여 그들의 知的 能力이 더욱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教育的 環境의 改善은 勿論 早期의 文化教育 方案인 Head start 「프로그램」이 研究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精神薄弱兒는 한번 失敗를 經驗한 場面에 대하여 그 欲求挫折에 適應할 참는 힘이 極히 不足하다든가 심한 否定的 自己概念을 가

지고 있다는 點 등의 많은 心理的 特性을 考慮하지 않은 경우에는 肯定的으로 形成된 行動마저도 오히려 나쁘게 바뀌어질 危險이 있는 것이다.

3. 肢體不自由兒

肢體不自由兒는 運動障礙 以外에 隨伴하는 視覺, 聽覺 등 感覺障礙, 言語障礙, 痲疾情緒行動上的 問題, 知的障礙 등이 있고 그 程度나 樣相이 多様하여 教育的, 心理的 要求 問題가 크다.

그러므로 肢體不自由教育은 教科指導 以外에 再活訓練에 力點을 두어야 하며 再活의 一環으로서 醫療的再活, 心理社會的再活, 職業的再活, 教育的再活의 各 領域의 綜合的 팀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再活訓練의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早期 教育에 부터 中等教育, 職業教育에 이르기까지의 教育計劃이 一貫性있게 樹立되고 實施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施設 設備 및 專門指導者(PT, OP, ST) 등의 現實化와 養成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4. 情緒障礙兒

情緒障礙兒童은 身體障礙兒童과는 달리 그들의 障礙가 身體的인 障礙에서 結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情緒的으로 安定되어 있지 아니하여 심한 萎縮行動을 하거나 過剩行動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心理的 不安을 除去할 수 있는 特殊한 教育對策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情緒障礙兒를 위한 教育對策으로는 精神分析學的인 側面, 精神教育的 側面, 生態學的 側面, 行動學的 側面 등이 考慮되고 있는바, 兒童의 情緒特性에 따라 以上の 諸般 方案 가운데 適合한 接近方法이 多様하게 適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고 特異한 教育方法이 이들 情緒障礙兒童들에게 基本的인 學習能力을 教育하는데 必要한 것이며 社會成熟能力과 愛情表現 訓練이 學習能力의 向上 못지않게 重要하다.

5. 言語障礙兒

言語障礙兒는 言語異常의 類型별로 크게 말더듬이, 言語發達遲滯, 構音障礙, 口蓋裂에 隨伴된 異常 등으로 分類되며 그 出現率을 보면 대개 5% 程度로 推定되고 있다.

이들 言語障礙兒를 위한 教育對策은 專門 言語治療士에 의한 巡迴治療制가 典型的이며, 程度가 심한 경우는 通級制 言語治療室에서 言語治療를 集中的으로 받게 한다. 우리나라는 몇몇 綜合病院의 言語治療室에서 주로 外國人 言語治療士가 中心이 되어 言語治療가 行해져 왔으며, 學校에 巡迴言語治療士에 의한 言語指導者 프로그램은 전혀 確立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다.

言語障礙兒의 出現率로 볼때 오히려 他障礙領域보다 더 많은 專門家의 養成이 時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大學의 特殊教師養成 프로그램에 言語治療士養成課程이 別度로 專門化되어 있지 않고 있어 解決되어야 할 時急한 課題가 되고 있다.

IV. 教育對策의 改善方案

오늘날 學校教育은 學校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技術社會의 急激한 變化로부터 深刻한 挑戰을 받고 있어, 既存의 學校教育體制는 全體社會의 變化動向에 맞추어 教育의 틀이 構造的으로 改革되지 않을 수 없다는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學校教育의 改革論과 함께 心身障礙兒童을 위한 特殊教育도 從來의 體制나 方法과는 다른 새로운 改善方案이 最近 活潑히 論議되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도 5次經濟社會開發計劃案中 82年에서 86년까지 教育部門에 15兆4千億 規模의 財政을 投資하여 86年末까지는 義務教育期間을 延長하는 한편, 社會全體를 學校化하는 社會教育體制를 크게 強化할 計劃이다. 本訓練案中 特殊教育部門을 보면, 86년까지 37個校의 特殊學校를 新設하는 한편, 既存의 特殊學校에도 2,015個의 學級을 增設하고, 이들의 教育을 위한 專

門教師를 大幅 養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特殊教育의 將來發展計劃을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몇가지 問題들에 대한 진지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로는 心身障礙兒童의 獨特한 教育的 要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特殊教育機關을 量的으로 擴大·普及하여 가는 한편, 이들을 위한 教育體制(educational delivery system)를 專門化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學令期에 屬하는 約 40萬名의 心身障礙兒童의 教育的 欲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獨特한 要求에 相應하는 特殊教育機關을 量的으로 增設하는 것이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가 되고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적어도 向後 10年동안 우리나라의 特殊教育은 特殊教育機關과 그들 프로그램의 量的普及에 크게 注力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教育機關의 量的增設과 함께 특히 留意해야 할 點은 이들을 위한 教育은 高度의 專門性이 確立되지 않으면 아무런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므로 教育의 質的 改善을 위한 專門性이 아주 強하게 要求되고 있다. 即 이들 障礙兒童의 診斷—判斷—配置—指導—評價에 이르는 一連의 傳遞體制를 專門化함으로써 教育結果를 公的으로 保證하는 소위 教育의 責務性(accountability)을 確立하는 일이다.

最近 美國은 教育에 있어 責務性을 確立하기 위해 大部分의 州에서 高等學校의 卒業에 必要한 最少能力評價制(minimum competency testing: MCT)의 實施를 州法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特殊教育이 잘 整備된 一部 州에서는 障礙兒童에게도 그 方法과 節次만을 달리하여 一般兒童과 같은 最少能力評價制를 導入하고 있어, 障礙兒童을 위한 教育結果에 대한 公的 保評(即 그 專門性)이 어느 程度 強調되고 있는가를 端的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는 特殊兒童을 위한 教育 프로그램을 多樣化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特殊教育 프로그램은 盲, 聾, 精神薄弱, 肢體不自由 등 4個障

碍領域에 걸친 特殊學校와 教育可能精薄兒를 위한 一般學敎內的 特殊學級등으로 限定되어 있어 實際로 이들 教育機關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教育에 받아들일 特殊兒童에게는 그들의 要求에 相應한 教育機會가 提供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反對로 이들 教育機關에 配置되어서는 안 될 兒童까지도 잘못 定置되어 教育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實情이다. 障碍兒童이 갖는 教育的 要求는 대단히 特殊한 뿐만 아니라, 아주 多様한 것이기 때문에, 障碍의 種別과 그 程度에 따라 施設特別指導, 特殊學校, 特殊學級, 一般學校內的 特別敎室, 巡廻指導, 特別諮問指導등과 같은 道具로서 반드시 體制化하도록 義務規定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IEP體制的 確立은 特殊兒童의 教育을 一般公教育體制的 一部로서 主流化(mainstreaming)하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韓國 特殊教育의 改善方案의 하나로 이른바 統合教育을 擧論하지만, 障碍兒童의 統合教育은 먼저 分離된 特殊教育體制가 잘 整備된 然後에, 障碍가 가벼운 特殊兒童을 위한 多様한 代置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이 充分히 確立되어 있을때에 비로소 그 成功的 實現이 可能한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特殊教育을 効果적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優秀한 專門敎員을 養成하고 確保하는 일이 대단히 重要的 課題가 되고 있다. 흔히 教育的 質은 敎師의 質을 凌駕하기 어렵다고 하듯, 特殊兒童의 獨特한 教育的 要求를 効率的으로 充足시켜 줄 수 있는 專門能力(Competency)을 잘 具備한 敎師를 養成·確保하지 못한다면 特殊教育은 걸치레의 名分에 不遇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레서 오늘날 우수한 敎師를 養成·確保하기 위한 誘引體制가 多角度로 檢討되는 한편, 이들 敎師의 訓練프로그램을 効率化하기 위해 傳統的인 敎室中心의 프로그램으로 부터 敎師로서 實際로 遂行하여야 할 專門能力에 基礎한 能力本位 프로그램(competency based program)에로의 改革이 積極 試圖하고 있다.

以上에서 論議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에 있어 障碍兒童을 위한 教育的 對策을, 効率的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對象兒童의 障碍種別과 程度에 따른 多様한 代置 프로그램(즉 特殊教育프로그램)을 量的으로 擴充하는 한편, 教育的 質的 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障碍兒童의 教育을 擔當할 優秀한 專門敎員의 養成과 確保에 注力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6페이지에서 계속)

結 言

이번 心身障碍者實態調査는 短期間동안에 全國規模로 實施한 이 種類的 調査로는 初有의 것이어서 計劃段階나 施行段階에서 여러가지 問題點에 봉착하였고 隘路事項 또는 적지 않았다. 調査의 內容이 보다 實際에 가깝게 되기 위하여

는 充分한 時間과 準備過程이 있어야 되겠으며 時間의 促迫이 結局 無理한 進行을 하게되어 調査結果 및 이의 分析 등에 있어서 物議를 빚어내었음을 是認하며 앞으로의 이러한 調査는 좀더 時間的인 余裕를 가지고 徹底한 調査員訓練을 包含한 線密한 作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附言하고자 한다.